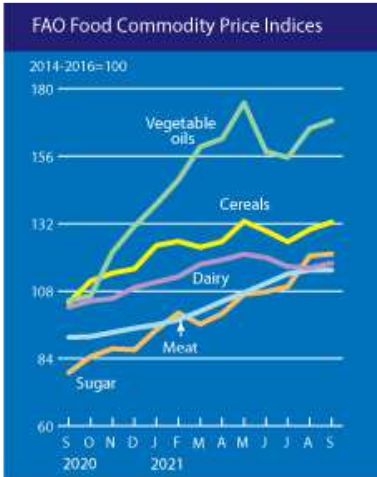




[시장동향] FAO 유제품 지수 수요 강세로 재반등

- 식품가격지수도 전월대비 1.2% 오르며 상승세 이어가



지난 9월 FAO의 유제품 가격지수는 117.9포인트로 전월대비 1.5% 상승하며 다시 한 번 반등했고, 전년동기대비 15.2%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여름철 폭염과 높은 습도로 유럽의 원유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유제품 재고도 줄어든 반면 탈지분유와 버터의 수입 수요가 강세를 보이며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아니아의 원유생산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생산량 증가가 미비한 것도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지분유 및 치즈도 생산량은 줄어든 반면 유럽의 내부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FAO 식품가격지수는 전월대비 1.2% 오른 130포인트로 전년동기대비 32.8%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류 가격은 전월과 변동 없이 보합세를 기록한 반면, 곡물 및 유지류 가격이 크게 오르고 유제품과 설탕 가격도 상승함에 따라 가격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fao.org, 10월 7일자 >

[낙농생산] 中 전력난에 낙농산업도 타격

- 정전사태로 착유기 작동 중단 우려



중국 전력난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면서 낙농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 및 시장분석 기업인 라보뱅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시작된 중국의 전력난이 장기화되면서 가공 산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낙농업계도 정전으로 착유기 작동이 중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중국 전체에 전력이 부족함에 따라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전력난이 계속될 경우 중국에서 생산되는 수출품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며 식료품은 물론 반도체, 원자재 수급 등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출처 : bnnbloomberg.ca, 10월 8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